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자체는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목사는 싫어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경건해야 할 목사들이 합당치 않은 세습과 부정부패를 행하며 또 이단이나 사교들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곳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 다녀 봤지만 염증을 느끼고 지금은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6 일만에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은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교회를 창시하셨을 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길을 쉽게 알려 주지 않았을까요? 현 시대(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떠나 심히 뒤떨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인 성경마저도 샤머니즘과 이교사상으로 심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교과서를 손에 쥐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치면 성경적 기독교(교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1.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서 과도하게 건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되면 목사는 자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것은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한국에만 있습니다. (마 16:18; 고후 6:16-18; 딤후 3:15)
2. **신약시대의 목사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들 가운데 한 형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데로 이끄는 일을 하며 목사와 성도들은 직무가 다를 뿐이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엡 4:11; 딤후 3:1-7; 히 2:11-13; 벧전 2:9-10)
3. **목사는 성경을 읽고 말씀자체를 강해해야 합니다.** 록펠러, 제에씨 페니, 링컨, 콜게이트, 마더 테레사, 성 프란시스 등의 이야기나 판에 박힌 예화 혹은 위인전으로 설교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말씀선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등으로부터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등에 이르기 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두 날개, 알파코스 등의 인위적 성공/성취 프로그램들은 영적 기근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입니다(롬 10:17; 고전 1:18-25)
4. **주일 성수, 특별세벽기도, 십일조, 일천 번제 헌금, 큰액수의 헌금을 통해 만사형통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허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은 누구나 걸릴수 있으며 어려움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지냅니다(마 19:24; 고전 10:13; 고후 12:7-10; 딤후 4:20; 약 5:14; 히 11:13)
5. **신약시대의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강제성을 띤 십일조, 맥추 감사헌금등은 구약시대에 신정정치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부과된 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자발적인 헌금과 일시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 헌금외에 다

른 헌금은 없습니다.(롬 10:2-4;고전 16:1-2;고후 9:6-7)

6.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분은 단지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6일만에-여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하루를 뜻함-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 하셨습니다. 이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자 그대로 6일 창조를 믿지 않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인본주의적 진화론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창 1;출 20:11;31:17)

7. 교회의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귀를 찢는 듯한 록음악, 댄스음악, 힙합음악 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세상의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에 심취하면 사람의 영과 혼이 마귀에게 사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천 유행가에 해당하는 CCM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CCM이 가사만 기독교의 틀을 유지할뿐 실제 음악 자체는 세상의 유행가와 같습니다(삼상 16:14-23; 고전 14:33;엡 5:19)

8.교회는 무엇보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흉악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음악을 통해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그들을 성정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신 6:3-9;엡 6:4)

9. 천주교회, 물몬교회, 안식교회 등과 연합을 추구하는 세계교회 협의회(WCC)는 복음을 무력화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불경건한 연합체 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에 따라 이제는 전혀 다른 종교들과 연합하는 배교행위도 교계에서 버젓이 심심찮게 벌어지며 그 내용도 갈 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 14:6; 행 4:12; 롬 16:17-18;엡 5:11-12;살후 2:9-12)

10 앞으로 이 땅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칠권통치가 이루어지는 7년 환난기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은 이 7년 환난기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몸이 순시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휴거를 받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는 시도에 다름 없습니다 (살 전 4:13-18;5:9;살후 2:1-12;계 3:10)

11.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하는 개역(개정)성경과 NIV,NASV,NKJV 등은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1% 소수 사본 본문)에서 나온 천주교 계열 성경 입니다. 마탄 루터를 비롯해 종교개혁자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보존해 주신 ‘공인 본문’ (99% 다수 사본)에 근거한 성경만을 썼습니다. 이 성경들 중에서 1611 년도에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 년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이 온 세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번역되고 읽혀온 순수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개역(개정)성경에서 ‘없음’으로 표기된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마 17:21;18:11;23:14; 막 9: 44, 46;11;26;15;28; 눅 17:36;23:17; 행 8:37; 15:34;28:29;롬 16:24 참고)

“내가 이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 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 22:18-19)